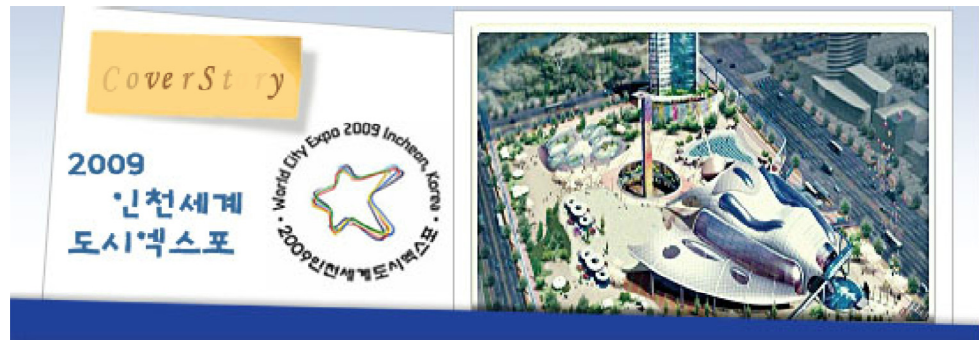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1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ntents

IDI Interview

연구/원/소식



2008년 인천발전연구원 시
무식
인천발전연구원은 2008년 무
자년(戊子年)에는 보다 더 활
동적이고 심도...



오갑원부위원장님과과의 만
남
세계일류 명품도시 완성을
지향하는 인천시에게 인천
세계도시엑스포는 인천을
세계...

인천/나/들이



역사가 살아숨쉬는 강화도 광
성보
고려때부터 천연의 요새였고
돈대는 숙종 5년(1679)에 축
조되었다. ...

시/정/연구



강화인삼의 세계명품화
추진방안
인삼은 세계시장에서 우
리나라를 대표...

도/시/동/향



복지국가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인구 약 400
만명이 살...

신/간/소/개



제주발전연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간
행되는 지역연구...

• Cover Story

• IDI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1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개최배경 및 의미

현재 전 세계적 트렌드가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
대로서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든 나라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미래도시의 모습에 대한
거대담론의 장을 우리 인천에서 만들어 보고자 2009년에 세계
도시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세계일류 명품도시 완성을 지향하는 인천시에게 인천
세계도시엑스포는 인천을 세계속에 브랜드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
항, 인천대교, 151층 쌍둥이빌딩, 가정5거리 도심재생사업 등
경쟁력 있는 좋은 자원들을 도시엑스포를 통해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
하고, 인천을 동북아의 중심 허브도시로 새롭게 포지셔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인천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은 물론 인천시민들에게 자긍
심과 보다 나은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
오갑원 부위원장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개최됨으로써 인천에 미치는 파급효과

먼저 경제적 효과를 말씀드리면 약 2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여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효과는 물론 1조3천6백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상
해, 두바이 못지않은 도시브랜드를 갖게 됨으로써 인천이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100여개 이상의 도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게되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관람객 100만명을 포함하여 1,000만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인천을 찾게 됨으로
써 운수업, 요식업, 숙박업 등에 활력이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른 엑스포와 차별화된 점

80일(2009. 8. 7 ~ 10. 25)간의 걸쳐 펼쳐지는 도시엑스포는 4가지측면에서 차별화하여 개
최할 계획이며, 이밖에 컨퍼런스 개최, 그리고 관람객들이 다양하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와 페스티벌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① 세계최초의 유비쿼터스 엑스포(Ubiquitous Expo)

엑스포에 참여하는 도시와 기업, 관람객 그리고 운영자가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해 미래
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Tomorrow-City 체험관 운영, 유
비쿼터스 교통광장 운영을 통해 실제체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② 사이버 엑스포(Cyber Expo)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엑스포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양
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이버 전시개념을 도입하여 도시문제 도시정책 도시경제 도시문화 도시

도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용하고, 도시 관련 사이트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전문 포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③ 친환경 엑스포(Eco-Friendly Expo)

도시와 친환경 생태라는 전 지구적 의제를 설정하여 현대 도시의 환경과 생태문제를 간단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Paper-Tainer' 전시관, 워킹 & 바이킹(Walking & Biking) 엑스포를 통해 도시 친환경 생태정책 담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④ 비즈니스 엑스포(Business Expo)

도시엑스포는 도시컨벤션장으로서 최첨단 도시를 파는 쇼펍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며, 비즈니스측면에서 도시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도시개발기술과 건축설계기술, 투자유치 등 도시와 관련된 매력적인 상품을 사고파는 마켓 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

역대 개최된 엑스포를 살펴보면 보통 5~6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준비하게 되는데 도시엑스포는 준비기간이 2년도 채 남지 않아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즘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중심이 되어 행사를 준비하다보니 중앙정부에서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지역행사중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으나,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국민들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 마디

1993년 대전엑스포 이래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1,000만 여명이 인천을 방문하는 국제행사로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도시엑스포를 통하여 ‘인천’이라는 도시를 전 세계에 Branding하고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세계 10대도시로 거듭남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270만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고, 엑스포 준비과정과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일류 명품도시 완성을 지향하는 인천시에게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인천을 세계 속에 브랜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인천대교, 151층 쌍둥이빌딩, 가정5거리 도심재생사업 등 경쟁력 있는 좋은 자원들을 도시엑스포를 통해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인천을 동북아의 중심 허브 도시로 새롭게 포지셔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인천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은 물론 인천시민들에게 자긍심과 보다 나은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1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연구/원/소/식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안) 공청회 개최



2008년 1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인천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안) 공청회'가 지난 1월 2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개최식 : 어윤덕(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 경과보고 : 나금환(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장) · 주제발표 :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설명 -석종수(인천발전연구원 도시계획 8228;교통연구실 연구위원) · 지정토론 : 사회자 : 권정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자 : 김미경(인천여성민우회 전 대표) 김재천(남동구노인복지회관 관장) 박승희(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유기석(인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팀장) 이광세(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관부서 간부와의 간담회



2008년 1월 21일 월요일 오전 12시

인천발전연구원은 연구조직의 탄력적 운영체계 도입과 2008년도 주요학술행사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2008년도 역점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를 실시하였습니

다.

1월의 대화의시간 추진



2008년 1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본원은 1월의 대화의 시간을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인천의 비전과 연구원의 역할 및 리더쉽'에 관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2008년 인천발전연구원 시무식



2008년 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인천발전연구원은 2008년 무자년(戊子年)에는 보다 더 활동적이고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인천시정 전반에 튼튼한추춧돌이 될 것을 다짐하며 시무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1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역사가 살아숨쉬는 강화도 광성보
그곳에서 즐기는 이른 봄맞이

강화도의 많은 관광지 중 맑은 공기 마시며, 여유로운 산책을 할 수 있는 광성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광성보는 강화 8경중의 하나이며, 덕진진, 초지진, 요해진, 문수산성 등과 더불어 강화해협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이다.

고려가 몽고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강화로 도읍을 옮기면서 1233년부터 1270년까지 강화 외성을 쌓았는데 이성은 흙과 돌을 섞어서 쌓은 성으로 바다길을 따라 길게 만들어졌다. 광해군때 다시 고쳐 쌓은 후 효종 9년(1658)에 광성보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숙종때 일부를 돌로 고쳐서 쌓았으며 용두돈대, 화도돈대, 광성돈대 등 소속 돈대가 만들어졌다. 영조 21년(1745)에 성을 고쳐 쌓으면서 성문을 만들었는데 '안해루'라 하였다.



광성보의 성문인
안해루(按海樓)

이곳은 1871년의 신미양요 때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열세한 무기로 용감히 싸우다가 몇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순국하였으며 문의 누각과 성위에 낮게쌓은 담이 파괴되었다.

1976년 다시 복원하였으며 광성보 경내에는 신미양요 때 순국한 어재연 장군의 쌍충비와 신미순의총 및 전적지를 수리하고 세운 강화전적지, 수리한 것을 기록한 비석 등이 건립되었다. 광성돈대는 다리미모습을 하고 있다. 돈 안에는 당시에 사용

했던 대포 3문이 복원되어 있고 그 주변에 성을 쌓았다. 이들은 1977년 보수,정화한 것이다. 용두돈대는 광성보에 속한 돈대이다. 성의 모양이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용두돈대라 한다. 좁은 강화해협에 용의 머리처럼 내밀고 있는 암반을 이용해 설치한 천연의 요새이다. 물이 빠지면 좁은 강폭이 묘한 지형을 이루며 서울을 지척에 두고 있다. 이곳 역시 병인, 신

미양요때 프랑스군, 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고려때부터 천연의 요새였고 돈대는 숙종 5년(1679)에 축조되었다. 허물어져 있던 성벽을 1977년 보수하면서 강화전적기념비를 세웠다. 비 앞면의 글씨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썼고 뒷면의 비문은 이은상이 지었으며 글씨는 김충현이 썼다. 손돌목돈대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강화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인다. 역시 숙종때 축조되었는데 중앙 세칸에 무기고가 있었고 3곳의 포좌가 있었다.



저녁 무렵 가족단위로 산책하기 좋은 송림로가 있으며, 손돌목 포대에는 3곳의 포좌와 바다, 갈대를 볼 수 있으며, 해가 질 무렵 가면 노을이 아주 멋진 장관을 만든다.

고려때부터 천연의 요새였고 돈대는 숙종 5년(1679)에 축조되었다. 허물어져 있던 성벽을 1977년 보수하면서 강화전적기념비를 세웠다. 비 앞면의 글씨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썼고 뒷면의 비문은 이은상이 지었으며 글씨는 김충현이 썼다. 손돌목돈대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강화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인다. 역시 숙종때 축조되었는데 중앙 세칸에 무기고가 있었고 3곳의 포좌가 있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1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강화인삼의 세계명품화 추진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삼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이며 한·미 FTA 협상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쌀의 대체작목과 농가소득증대 품목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강화군은 인삼의 육질형성과 저장성에도 좋은 여건으로 인삼의 저장·가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높음.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강화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살려 강화인삼을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세계명품화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화(복합산업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생산측면에서 생산기반 정비가 미비하며 규모가 영세하고 농약 과다 살포로 안정성을 위협 받고 있으며 장기재배로 생산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점이 도출됨. 유통 및 수출·입 측면에서는 불투명한 유통 단계로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국내 유통시장에서 외지삼의 보호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파악됨. 홍보·마케팅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성이 결여된 인삼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원체계 측면에서는 인삼관련제도와 관리행정체계가 미약하고 제품개발 및 관련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 분석됨.

강화인삼 산업의 현황 분석

강화인삼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생산측면에서는 강화조합의 인삼재배면적은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생산량 역시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유통·가공측면에서는 금산시장의 수삼유통 비중이 70%인데 반해 강화인삼시장은 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인삼가공업체 중 83%가 충남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강화인삼 제조업체의 경쟁력도 미약한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상황에서 강화는 인삼의 세계명품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이 제시됨.

강화인삼의 세계명품화 추진방안(정책제언)

친환경 고품질 인삼의 집중생산

첫째, 강화지역은 친환경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인삼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에서부터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작장해와 병충해에 강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품질을 개선해야 할 것임.

강화인삼 공동브랜드 개발

강화인삼의 홍보·마케팅 강화와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화군청, 민간제조업체, 강화인삼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통합하여 공동브랜드로 개발해야 함. 공동브랜드는 강화인삼의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고 브랜드 디자인, 마크, 브랜드명까지 일관적으로 개발되고, 보다 밝고 친근한 이미지의 브랜드가 되어야 할 것임.

강화인삼 공동브랜드 개발 후에도 강화군 조례로 품질관리 인증 시스템을 수립하여 강화인삼 브랜드의 남용을 방지하고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행위를 방지하는 등 엄격한 브랜드 관리가 필요함.

강화인삼 전담조직 신설

강화인삼 산업의 일관성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강화인삼 전담조직이 필요하나, 현재 강화군은 인삼 관련 업무를 농수산물과에서는 홍보·마케팅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실에서는 생산·가공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저하됨.

전담조직설립은 크게 행정조직(1안)과 민관 협력조직(2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안은 기존의 농수산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활용하여 농수산물과내 '인삼팀'을 조직하는 것이며 2안은 산·학·연·관의 각 분야 전문가와 기관단체들이 협력하여 '강화인삼클러스터사업단'을 설립하는 것임. 이러한 강화인삼 전담조직은 기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생산·가공에서부터 수출, 유통, 홍보·마케팅에 이르는 전반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임.

강화인삼시장을 인삼 유통의 메카로 성장

강화인삼시장의 확대와 동북아 인삼유통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인삼제품을 생산해야하며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적극 육성하여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삼조합의 소매형태의 판매장으로는 인삼유통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판매장, 공판장 등 다양한 판매장을 통해 인삼시장의 거점시설로 육성하여 고품질의 인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이렇게 강화인삼시장이 수도권 인삼 유통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강화인삼의 제품 차별화, 이미지차별화, 서비스 차별화를 추진하고 수도권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임.

인삼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이며 한·미 FTA 협상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쌀의 대체작목과 농가소득증대 품목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강화군은 인삼의 육질형성과 저장성에도 좋은 여건으로 인삼의 저장·가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높음.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강화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살려 강화인삼을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세계명품화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화(복합산업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1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광역시 행정리더십 확보 방안

인천은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많고 다양한 종류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시민사회도 비교적 역동적이어서 행정의 유연성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대응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인천의 도시발전 및 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도 유능한 행정리더십이 크게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입장 아래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합리적 행정리더십을 검토하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들을 여러 차원에서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즉, 인천시 행정에 필요한 행정리더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내부에서 어떻게 계획적·생산적으로 확보·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이 분야 여러 전문가들이 시도했던 것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우선 리더십 일반이론을 살펴보고,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품성론의 관점에서 리더십을 탐색하고, 이어서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기본적인 유형을 검토했다.

행정 내외의 변화된 상황과 여건은 행정분야에서의 리더들의 철학과 자세, 사고와 전략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그 만큼 인천은 행정리더십의 의미와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리더십 확보의 일반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행정리더십 결정변수로서 ①경험과 경력, ②정보와 지식, ③전문성과 능력, ④성품과 개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리더십이 구체적인 행정현장에서는 어떠한 모습과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외부 관찰자 및 내부 관계자의 시선과 경험을 통해 행정리더십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행정문화 및 전문성, 그리고 교육훈련 분야에서 행정분야 리더십을 이해하는 요인과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 리더십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짚어보고, 이러한 요인이나 조건들이 어떻게 행정리더십 개발 및 향상을 방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필자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탐색했다.

이 연구의 목적이자 보고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리더십 개발전략 및 확보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인천행정리더십(론)에 포함될 수 있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구성될 수 있는 행정리더십의 범주를 검토해서 여기에 포함될 리더십의 내용과 성격을 규명했다.

이어서 개인이 좋은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품성개발은 행정리더십을 주체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내생변수이며, 그런 면에서 품성 개발을 통해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주 '본원적' 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접근방식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의 품성을 통한 리더십은 리더의 성품 즉,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위 원칙중심의 리더십과 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직에서 인간관계가 상호 신뢰와 존경심을 바탕으로 한다면, 여기서 생성되는 지도력 또는 리더십은 아주 강고하고 또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는

품성개발을 통한 리더십 확보 방안이 다른 어느 방식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에서 개인의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했다. 즉, 행정조직 또는 기관이 개인의 품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맞춰 그 방안을 제안했다.

선진 행정부의 사례나 우리나라 정부의 리더십 요인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정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적으로는 교육훈련을 통한 행정리더십 강화를 도모하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종합적으로 상급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로서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공무원들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훈련 방안을 검토하고, 이어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방안을 살펴보았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제도야말로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확보케 해서 관리자들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토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문화는 리더십을 규정하는 외부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자세,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업무행태 및 행정관행 등은 행정문화로 정착했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여러 면에서 행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문화가 행정리더십이 만들어지는 토양이자 리더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조성되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행정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규명하였다. 즉, 제도적 장치나 강제적 요구, 타율적 분위기에서의 수동적 행정 수행이 아니라, 스스로 효율적인 방식을 동원,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인천은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많고 다양한 종류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시민사회도 비교적 역동적 이어서 행정의 유연성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대응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인천의 도시발전 및 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도 유능한 행정리더십이 크게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1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뉴질랜드는 인구 약 400만명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면적은 남한의 약3배이며 북섬과 남섬으로 나뉘어져 있다. 인구의 대부분은 영국계 백인이며 약 10%정도가 원주민인 마오리족이다. 뉴질랜드를 통치하던 영국왕실은 1840년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상호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와이탕이(Waitangi)' 조약을 맺었다. 침략전쟁 없이 원주민과 평화협정을 맺은 '와이탕이 날'을 국가 건국기념일로 삼고 있는 뉴질랜드는 평등정신이 강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매우 관용적인 나라이다.

한국과 뉴질랜드가 가깝고도 친숙한 나라가 된 것은 한국이민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뉴질랜드로의 이민은 1990년대 본격화되었는데, 이민의 주요 동기는 자녀교육이었다. 이는 다른 나라 이민 1세대들이 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민을 떠난 것과 다른 점이며, 이런 배경으로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 교민 1세대들은 다른 나라 교민에 비해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교육수준도 높다고 한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뉴질랜드의 타문화에 대해 관용적인 전통 때문에 심한 차별을 경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뉴질랜드는 화산이 많고 국토의 약 70%를 차지하는 산지와 구릉이 그야말로 이국적인 자연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톨킨의 판타지소설 『반지의 제왕』 영화가 촬영된 곳이 뉴질랜드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뉴질랜드는 넓은 초원과 그 위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 농업목축 국가이다.

농업과 목축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대신에, 공산품은 주로 수입해서 사용한다.

적은 인구로 인해 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업을 발전시키느니 차라리 수입해서 쓰는 것이 더 싸다고 한다.

뉴질랜드는 계층간 차별이 없고 소득격차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모범적 민주복지국가이다. 이미 1898년에 세계 최초로 양로연금제가 실시된 이후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로 세계적 사회복지국가로 되었다. 1984년 외환위기 이후로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복지 지출이 감축되었으나 세계에서 가장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로 꼽힌다.

뉴질랜드는 또한 여권신장이 두드러진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미 1893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고, 191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에게 피선거권을 주었다.

이런 나라답게 현재 헬렌 클라크(Helen Clark) 여성총리를 비롯해 입법부 수장인 마거릿 윌슨(Margaret Wilson)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인 시안 엘리어스(Sian Elias) 대법원장 등 3부요인이 모두 여성이다. 2006년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총독도 여성이었고, 원주민인 마오리를 대표하는 사람도 여성이었다. 2007년 현재 뉴질랜드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장관 20명 중에 7명이 여성이다.

여성의 지위향상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초대 뉴질랜드 총리를 지낸 마이클 조셉 새비지(Michael Joseph Savage, 1892-1940)이다. 1907년에 뉴질랜드로 이주해와서 노동당 당수를 지낸 Savage는 뉴질랜드에 복지정책을 도입해 대중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사람이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적 진출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키위새’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키위(Kiwi)는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새로 날개가 퇴화되어 날지 못하며 뉴질랜드에서만 볼 수 있다.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새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사람들을 가리켜 키위라고도 부른다. 키위는 진한 부성애를 가진 동물로 암컷대신 수컷이 알을 품는다. 이 때문인지 뉴질랜드 남자들을 유난히 가정적이라 한다. ‘키위남편(Kiwi husband)’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의 가정적인 남편을 일컫는 말이다.

뉴질랜드 사회에서 남성은 풀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는 극장이나 공공장소에 입장할 때 아이, 장애인, 노인, 여성, 애완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의 순서로 입장이 되는데서 생긴 말이다. 뉴질랜드 남성들이 사회에서 정말로 풀찌대접을 받는다고 보다는 남성들의 배려가 그만큼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어찌되었건 뉴질랜드 남성들은 사회에서는 여성들과 함께 일하고 가정에서는 육아와 가사의 책임을 나누면서 지금의 수준 높은 복지국가를 이루어왔다.

뉴질랜드는 인구 약 400만명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면적은 남한의 약 3배 정도이며 북섬과 남섬으로 나뉘어져 있다. 인구의 대부분은 영국계 백인이며 약 10%정도가 원주민인 마오리 족이다. 뉴질랜드를 통치하던 영국왕실은 1840년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상호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와이탕이(Waitangi)’ 조약을 맺었다. 침략전쟁 없이 원주민과 평화협정을 맺은 ‘와이탕이 날’을 국가 건국기념일로 삼고 있는 뉴질랜드는 평등정신이 강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매우 관용적인 나라이다.

신/간/소개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국제경제적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개혁이 원-원 전략임을 제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개혁이 국민경제, 수도권, 지방 등의 성장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수도권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 본 연구에서는 규제 정책을 지역별 규제에서 산업별 규제로 전환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전략적 개편이 필요함을 건의 하고 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1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지역정책연구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간행되는 지역연구 논문집. 이번 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주민소환제 도입과 발전방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의 함의와 과제', '지방정부의 능력과 자율성 측정에 대한 연구' 등이며, 총 여섯 편의 외부기고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간행되는 지역연구 논문집. 이번 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기후 변화와 영향평가의 필요성', '제주 지역의 청정에너지산업 육성방안',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향후전망',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효과 증대방안' 등의 기획논문과 함께 제주 지역과 관련된 지역연구논문 총 10편을 수록하고 있다.